

KOSPI 200 지수산출방법론 개선

I 주요 개선사항

1. 구성종목 선정기준

가. 글로벌 산업분류체계를 참조하여 9개 산업군으로 분류

☐ (기존)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8개 산업군*으로 분류

* 농/임/어업, 광업, 제조업, 전기가스업, 건설업, 서비스업, 통신업, 금융업

☐ (개선) GICS의 경제섹터를 참조하여 9개 산업군*으로 분류

* 에너지, 소재, 산업재, 자유소비재, 필수소비재, 헬스케어, 금융/부동산, 정보기술/통신서비스, 유틸리티

- 구성종목 심사 시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등 종목심사기준을 모든 산업군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

나. 산업군별 종목선정기준 적용 시 누적시가총액 기준 상향

☐ (기존)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군에 대하여 산업군별 누적시가총액이 70%에 달하는 종목까지 선정

☐ (개선) 누적시가총액 기준을 80%로 상향

다. 버퍼기준 일부 변경

☐ (기존) 산업군별로 기존 구성종목수에 부족한 잔여종목을 해당 산업군 내에서 시가총액순으로 추가로 선정

☐ (개선) 구성종목수가 200종목에 미달할 경우 산업군 구분 없이 미선정된 기존종목 중에서 잔여 종목수만큼 시가총액순으로 추가 선정

2. 기타 방법론

가. 신규상장종목 특례편입 기준 변경

- ☐ (기존) 신규상장종목의 상장 후 15매매일간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의 1% 초과 시 정기변경 이전에 특례편입 가능
- ☐ (개선) 신규상장종목의 상장 후 15매매일간 시가총액이 전체 보통주 종목 중 50위 이내이면 특례편입 가능

나. 구성종목간 합병 시 지수반영 방법 변경

- ☐ (기존) 피합병법인 매매거래정지일에 종목교체 후 합병신주는 상장일에 반영
- ☐ (개선) 피합병법인 매매거래정지일에 종목교체 및 합병신주도 미리 반영

다. 구성종목 기업분할시 신설법인 편입기준 변경

- ☐ (기존) 신설법인의 시가총액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구성종목으로 편입
 - ① 산업군 내 누적시가총액 70% 이내이고, 산업군 예비종목 1순위 보다 큰 경우, ② 코스피 200 구성종목 중 100위보다 큰 경우
- ☐ (개선) 신설법인의 시가총액 순위가 코스피 200 구성종목 중 100분의 80 이내인 경우 구성종목으로 편입

라. 유동비율 정기변경 주기 및 반영비율 변경

- ☐ (기존) 연 1회(6월) 정기조정하되 5% 단위 대표비율 적용
- ☐ (개선) 연 2회(6월,12월) 정기조정하고 1% 단위 실제비율 적용

Ⅱ 시 행 일

☐ '17년 KOSPI 200 정기변경 시(6.9)부터 개선된 방법론 적용